2021년 11월 28일 (자) 대림 제 1 주일 (다해) No. 1289

대림 제 1 주일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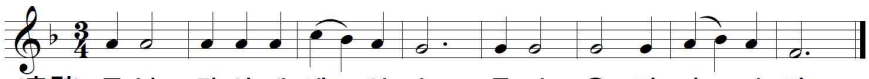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예레 33,14-16

[화답송] ..... 시편 25(24), 4-5ㄱㄴ.8-9.10과 14(◎ 1)



(후렴) 주 님, 당 신 께 제 - 영 혼 들 어 올 리 나 - 이 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 독서] ..... 1 테살 3,1-4,2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21,25-28.34-36

[성가안내]

- 입당성가 [96] 하느님 약속하신 분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성가 [90] 구세주 보내 주소서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제임스 M 한트 김 영우 요셉, 강 견대 마리아 부부 이 만재, 원 광남 부부 진 길춘 유 재분 베로니카	율릿다 김 경련 김 지영 유스티나 이 영애 레지나 진 경란 모니카 익명
생미사	**봉헌**
박 수정 크리스티나, 박 수진 줄리아 이 지연 안나 레지나 이 병국, 아녜스, 조앤 그레이스 황 예슬 엘리자벳	양 미숙 마리아 가족 가족 가족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1월28일	조소연 마르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권민호 바오로	정은철 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신혜정 소화 데레사	이아림 수산나
12월5일	백이백 아오스딩	채봉석 그레고리오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신혜정 소화 데레사	한서희 데레사

● [성탄 판공성사]

대림시기 동안 고백성사를 (어느 성당이나 관계없음) 받으시는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판공성사표' 작성하셔서 사무실 앞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설립 제25주년 기도문

2022. 3. 6.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한인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문을 매 주일 미사전에 바칩니다.

● 풍물패 '신명' 연습있습니다.

오늘, 28일 오후 2시 ~ 4시 교육관 3A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2C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찬양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위령성월 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원조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21,25-28. 34-36)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말의 표징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지만, 동시에 권능과 큰 영광릉 떨치며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도 그때이니 마음이 물러지지 않게 하여 갑자기 덮칠 '덫'에서 벗어날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오늘 제1독서 예레미야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를 경험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지만, 하느님께서 전에 그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가문에서 태어날 '정의의 싹',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안저나게 살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며 '회복하게 될 열광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 테살로니카1서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이야기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기억시키며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실천적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아릉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서로 배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교회가 기념하는 예수 성탄일은 세상의 여느 생일잔치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세상의 생일잔치들은 어떤이가 태어났던 때(과거)를 기념하지만, 예수 성탄은 장차 다가올 희망에 찬 미래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실제 생일을 알 수 없는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는데 이 날은 로마에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날인만큼 희망을 새기는 뜻이 있어 "빛의 축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날을 위해 대림시기를 지내는 교회는 우리의 가난한 처지에 이미 들어와 사시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육화의 신비를 묵상함과 동시에 부활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희망과 간절함을 통하여 종말 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오소서, 주님!'**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구원관"

종교마다 영혼이 사후에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승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톨리과 개신교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개신교의 구원관은 좀 뻔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 받는다는 구원관, 살아서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느 구원관은 얼핏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강조한 듯 하지만 그 속내에는 무책임하고 뻔뻔함이 보입니다. 실컷 죄짓다가 죽지 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식의 무식하 사고방식을 만들 위험도 크고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무지함도 여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철면피한 종교 영업(?)를 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가톨릭의 구원관은 어떠한가?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가고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를 다 씻을 때까지 연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대죄를 지은 자들은 여지없이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구원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종교적 자격지심과 구원 불안증에 시달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요? 구원을 천당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시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구원을 포악한 독재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하느님 보시기에 덜 차는 사람들은 연옥, 하느님 보시기에 꼴 보기 싫은 놈들을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병적인 믿음을 가진, 심한 신경증 환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을 가학성 성격장애를 가진 신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학대적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학대적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적인 종교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중요시하는 구원론은 말 그대로 유물론적인 구원론입니다. 참 구원이란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자캐오가 주님을 접하고 내적인 변화를 가진 것처럼, 마음 속 자아를 괴롭히는 소리들에서 벗어나게 자유로움을 주는 말씀을 받아 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부동산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세대들이 천당도 평수 넓은 아파트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주일학교 교리시간에 보좌신부가 아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대답을 하는데 한 개구쟁이가 빙긋이 웃더니 "10원에서 1원을 빼면 9원이요!"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을 놀린 벌로 신부가 돼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